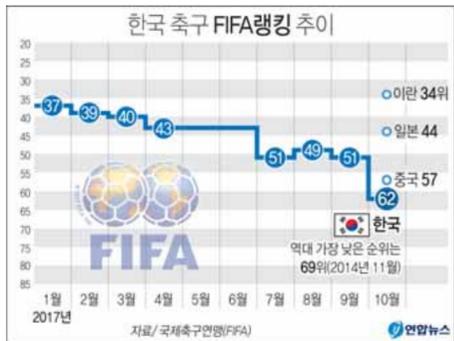


# 중국에도 뒤진 한국 축구 월드컵 본선 '가시밭길'



신태용 감독



## FIFA 랭킹 62위로 '뚝'...4번 포트 배정 확정 유럽 2팀과 16강 다들 '죽음의 조' 편성 가능성

한국축구가 10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추락으로 처음 중국에 뒤지는 '굴욕'을 당하면서 2018 러시아 월드컵 본선 경쟁에서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오는 12월 1일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진행될 월드컵 본선 조 추첨 때 유럽의 강팀들과 경쟁하는 '죽음의 조'에 묶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내년 러시아 월드컵부터는 본선 조 추첨 방식을 기존 '대륙별 포트 배분' 대신 'FIFA 랭킹

분배'로 바꿨다. 이에 따라 10월 FIFA 랭킹 순으로 32개 참가국을 1번 포트부터 4번 포트까지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한국은 10월 FIFA 랭킹이 62위여서 개최국 러시아(65위)와 사우디아라비아(63위)를 제외하고는 이미 본선에 올랐거나 오를 가능성이 다른 32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 4번 포트 배정이 확정된 것이다. 종전 대륙별 포트를 안배했던 기존 방식보다 강팀들과 만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본선 조별리그는 A조부터 H조까지 네 팀씩 8개 조로 나뉘는 가운데 한국은 최악에는 유럽의 두 팀과 16강 진출을 다룰 수도 있다. 최근 경기력 난조로 축구팬들의 질타를 받는 신태용호의 16강으로 가는 길이 더욱 험난해진 셈이다. 한국축구 도전사에서 유럽의 벽은 높았다. 한국이 처음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1954년 스위스 대회에서는 헝가리에 0-9, 터키에 0-7 참패를 당했다. 이후 32년 만에 본선 무대에 진출한 1986년 멕시코 대회 때도 불가리아전 1-1 무승부, 이탈리아전 2-3 패배로 1무 2패를 기록하며 탈락했다. 유럽 두 팀과 만난 1990년 이탈리아, 1994년 미국, 1998년 프랑스, 2006년

독일, 2014년 브라질 대회 모두 조별리그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 '지옥의 조' 가능성을 높인 한국축구의 FIFA 랭킹 추락은 최근 급격하게 약해진 대표팀 경기력이 자초한 결과다. FIFA 랭킹 포인트는 4년간의 FIFA 평균 경기 성적을 반영하는 데 최근 성적일수록 가중치를 부여해 2017년 100%, 2016년 50%, 2015년 30%, 2014년 20% 순이다. 또 ▲경기 결과 ▲경기 중요도 ▲상대팀 랭킹 ▲소속 연맹을 합산해 랭킹을 매긴다. 9월 51위였던 한국은 당시 64위였던 러시아와 56위였던 모로코에 잇따라 패하면서 랭킹 추락이 예견됐다. /연합뉴스

## '2패' 양키스 3점 홈런 2방으로 반격



17일 미국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뉴욕 양키스-휴스턴 애스트로스 3차전에서 3회 말 양키스의 토드 프레이저가 스리런 홈런을 친 후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 ALCS 3차전 휴스턴에 8-1 승

뉴욕 양키스가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7전 4승제)에서 3점 홈런 두 방을 묶어 반격에 나섰다. 양키스는 17일 미국 뉴욕 주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ALCS 3차전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 8-1로 완승했다. 휴스턴 원정에서 먼저 2경기를 내준 뒤 내리 3연승해 챔피언십시리즈 티켓을 거머쥐었다. 양키스를 승리로 이끈 결정적인 홈런 포 2방이었다. 2회 말 2사 후 스티븐 카스트로의 내야 안타와 에런 힉스의 좌중간 안타로 주자를 1·2루에 채운 양키스는 토드 프레이저의 선제 결승 스리런 홈런으로 앞서갔다. 상승세를 탄 양키스는 4회 말 대거 5득점 해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2사 1·3루에서 체이스 해틀리의 내야 안타로 1점을 추가한 뒤 브렛 가드너가 몸에 맞는 공을 얻어 에런 저지 앞에서 만루를 채웠다. 정규시즌 홈런 52개로 메이저리그 역대 신인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운 저지는 이번 포스트시즌 타율 0.125(32타수 4안타)로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저지는 바뀐 투수 윌 해리스의 2구 폭투를 지켜봐 1점을 얻은 뒤 5구 시속 150km 포심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라인드라이브로 양키 스타디움 왼쪽 담을 넘겼다. 저지의 이번 포스트시즌 2번째 홈런이며, 순식간에 점수는 8-0이 됐다. 휴스턴은 9회 초 마지막 공격에서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연합뉴스

## 'V11' 불 밝힌 KIA

### 야간 훈련 소화... 18·19일 야간 연습경기

KIA 타이거즈가 'V11'을 향한 불을 밝혔다. 17일 챔피언스 필드 조명탑에 불이 들어왔다. 지난 9월 26일 LG 트윈스와의 2017시즌 홈 최종전 이후 처음 꺼진 챔피언스 필드의 조명탑. KIA 선수들이 한국시리즈 야간 경기를 위한 '시차 적응'에 들어간 것이다. KIA는 챔피언스 필드에서 오는 25일 시작되는 한국시리즈를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정규시즌이 끝난 뒤 지난 6일 처음 챔피언스 필드에 소집된 선수단은 기초 훈련을 소화한 데 이어 11일 라이브 훈련을 갖고 본격적인 '가을 잔치'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 14일에는 자체 홈백전을 갖고 7이닝을 소화하는 등 처음 실전 훈련에도 나섰다. 주간 훈련과 연습경기를 했던 KIA 선수들은 17일 평소보다 늦게 경기장으로 출근했다. 앞서 오후 2시와 3시부터 훈련과 연습경기를 소화했지만 17일은 오후 5시에 훈련이 시작되면서 출근이 늦어졌다. 3일전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모두 야간 경기에 대비한 스케줄로 구성됐다. 17일 조명 아래서 야간 적응 훈련을 한 선수들은 18·19일에는 야간 연습 경기를 치른다. 한국시리즈 1·2차전과 5차전 그리고 6·7차전이 오후 6시 30분 야간 경기로 진행이 되는 만큼, 야간에 훈련과 연습 경기를 하면서 본무대를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게 되는 것이다. 특히 18·19일은 오랜만의 야간 연습 경기인 만큼 실전 감각을 다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한국시리즈 엔트리 남은 자리를 위한 경쟁의 무대도 될 전망이다. 첫 야간 훈련의 분위기는 좋았다.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몸을 풀고 농담을 하며 첫 야간 훈련을 소화했다. 부상으로 우려를 샀던 이명기와 최형우의 컨디션도 '이상 무'다. 이명기는 시즌 막바지 발목 부상으로 한 달 여간 공백이 있었고, 최형우는 허리가 좋지 않아 지난 14일 연습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스트레칭 후 야수진의 첫 훈련으로 진행된 주루 훈련에서 이명기와 최형우의 모습이 보였다. 설정된 상황에 맞게 전력으로 그라운드를 질주한 두 선수는 "부상 부위는 괜찮다"며 한국시리즈 준비에 이상이 없음을 알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기보배·최미선 대한민국 체육상 청룡장

제55회 대한민국 체육상 및 2017 체육발전유공자 훈·포장 전수식이 17일 서울 용산구 용산동 6가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55회 체육의 날을 맞아 시상식을 열어 대한민국 체육상 부문별 수상자 9명과 정부 포상을 받는 체육발전 유공자 104명을 시상했다. 시상식에서는 여자 양궁의 간판인 최미선(광주여대)과 기보배(광주시청)가 나란히 체육상 경기상과 체육훈장 최고등급인 청룡장 영예를 안았다. 최미선은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리는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참가 중이어서 시상식에는 아버지 최보영 씨가 대신 참석했다. 최미선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양궁 여자단체전 금메달을 수확했고, 올해 대만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



기보배 최미선

시아드 양궁 여자 리커브 단체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기보배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개인전, 단체전 2관왕을 달성한 데 이어 리우 올림픽에서도 단체전 금메달,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청룡장을 받았다. 또 김종기 태권도 국가대표팀 총감독(지도상)과 박성인 대한빙상경기연맹 명예회장(공로상) 등이 부문별 수상 기쁨을 누렸다. /연합뉴스

## FC바르샤 홈구장 '캠프 누' 내일 재개장

카탈루냐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강경 진압에 항의해 폐쇄됐던 FC바르셀로나 홈 구장 '캠프 누(Camp Nou)'가 다시 문을 연다. FC 바르셀로나는 동맹파업 차원에서 문을 닫았던 홈 구장 캠프 누가 19일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D조 올림피아코스 FC(그리스)와의 경기에 맞춰 그라운드와 관중석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17일 AFP통신이 전했다.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 독립 주민투표

가 정당하다고 주장, 투표 당일이었던 지난 1일 라스팔마스 홈 경기 일정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관중 경기를 펼친 뒤 다음날 캠프 누와 구단 박물관의 한시적 사용 중단을 선언했다. 캠프 누 재개장은 스페인 정부가 "19일까지 독립선언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카탈루냐에 두 번째 '최후통첩'을 보낸 미묘한 상황이라 여는 때보다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올림피아코스와 경기에서도 17분, 정확히 17분 14초가 되면 '인디펜덴시아'(독립)를 외치는 함성이 관중 9만9000명을 수놓을 수 있는 캠프 누에 울려 퍼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바르셀로나 팬들은 스페인에 복속된 아픔을 곱씹으며 분리독립 의지를 굳히자는 뜻으로 인데펜덴시아를 외쳐 왔다. /연합뉴스